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12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느헤미야 · 누가복음 · 요한복음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창조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수 그리스도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23장
- 12 1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다
- 20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24장
- 요한복음 1장 ~ 요한복음 5장
- 28 2과 예수님의 사랑
- 36 매일성경묵상 요한복음 6장 ~ 요한복음 11장
- 44 3과 내 증인이 되리라
- 52 매일성경묵상 느헤미야 1장 ~ 느헤미야 6장
- 60 4과 금년의 남은 시간에
- 68 매일성경묵상 느헤미야 7장 ~ 느헤미야 12장
- 76 5과 매우 중요한 조언
- 84 매일성경묵상 느헤미야 13장

『증언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증언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12

December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	3 누가복음 24장	4 요한복음 1장	5 요한복음 2장
9	10 요한복음 6장	11 요한복음 7장	12 요한복음 8장
16	17 느헤미야 1장	18 느헤미야 2장	19 느헤미야 3장
23 제6차 학습 세례식	24 느헤미야 7장	25 느헤미야 8장 성탄절 감사 예배	26 느헤미야 9장
30	31 느헤미야 13장		

January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누가복음 23장
6 요한복음 3장	7 요한복음 4장	8 요한복음 5장
13 요한복음 9장	14 요한복음 10장	15 요한복음 11장
20 느헤미야 4장 성탄 축하 찬양의 밤	21 느헤미야 5장 성탄절 기념 음악회	22 느헤미야 6장
27 느헤미야 10장	28 느헤미야 11장	29 느헤미야 12장

교회 주요 일정

12월 16일

은퇴자 시상

12월 20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1일

성탄절 기념 음악회

12월 23일

제6차 학습 세례식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나의 주요 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❼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2013년이 되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이때,
우리는 2012년의 마지막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삶 전체가 카운트다운이며, 그렇기에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휴가 가는 일도 없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뛰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2013년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이보다 먼저 우리는 올해 우리가 했던 일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하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해 낙심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허비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며
아직도 큰 일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좁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2012년 12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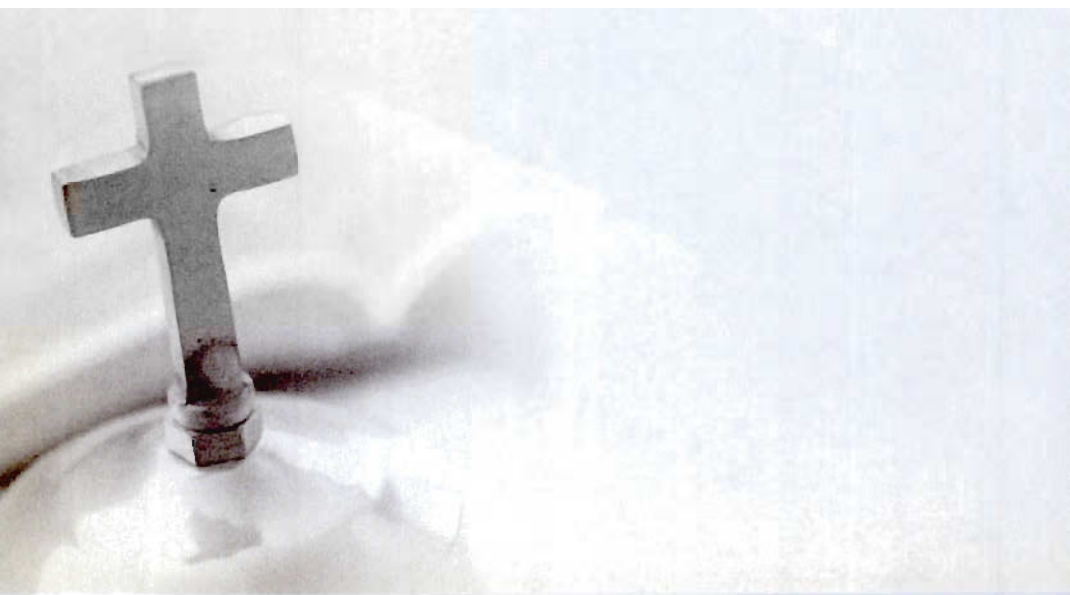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1

토요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1절).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자들이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목청껏 환호하며 맞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큰 소리로 재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23절). 심지어 민란과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풀어줄지언정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기필코 죽여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막무가내 요구는 어처구니없게도 인정되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하나의 ‘역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인은 놓아 주고, 죄가 없으신 분은 죽음에 내어 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죄인의 상태가 되시어 죄인이 가야 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유대인의 왕’(38절). 이것은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힐난할 목적으로 이러한 문구를 붙였습니다(37절).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것도, 그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약속된 만왕의 왕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요, 온전히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사 9:6~7, 53:4~6).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알지 못하고 한낱 죄인으로 취급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빌 2:9~11).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눅 23:38)

There was a written notice above him, which read: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Lk. 23:38)

누가복음 23장
찬송가 96장

묵상노트

• 낙원(43절) :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로서, 원뜻은 ‘공원’, ‘정원’, ‘담장이 둘러쳐진 동산’이다. 신자가 죽어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자는 이 낙원에서 영광 가운데 기다리게 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요 참 생명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출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바울과 크리스마스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관련 내용은 복음서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로마서 16:25~27)

무엇이 기적인가 우리가 은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기적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롬 16:25~26). 신비의 계시가 인간에게 내려졌다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모든 실체는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고전 13:9,12 ; 요일 3:2).





크리스마스는 두 위대한 기적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진 날이 크리스마스이며, 이것은 두 위대한 기적을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바울은 사도 요한이 언급한 성육신의 진리(요 1:1,14)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설명(빌 2:6~8 ; 엡 3:4, 5:32, 6:19)하였다. 아무도 알 수 없던 비밀이 누구나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다(골 2:2, 4:3).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를 주는가 성육신의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 “이 복음으로”(롬 16:26).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살전 3:13 ; 살후 3:3 ; 벰전 5:10 ; 요 10:28~29).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 돈과 명예와 전혀 관계가 없다. 크리스마스는 복음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롬 16:25~27). 아멘.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 주일

3 월요일 ☐ 누가복음 24장4 화요일 ☐ 요한복음 1장5 수요일 ☐ 요한복음 2장6 목요일 ☐ 요한복음 3장7 금요일 ☐ 요한복음 4장8 토요일 ☐ 요한복음 5장

1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다

Mary Magdalene Came To Jesus Christ

| 초점 |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 찬송 |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 본문 | 요한복음 20:1~2

⁽¹⁾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²⁾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땅은 가장 어두웠습니다(눅 23:44~45).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햇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절망으로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얽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잊거나 의심하였습니다.

※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있던 천사가

그곳으로 온 여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마 28:5~6)?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걱정하면서도 무덤으로 갔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바르기 위해서 손에 향품을 들고 무덤에 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여인들은 신자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살아 계심에도 그분의 죽은 몸을 위한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일찍이 가야 한다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요 20:1 _____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낙담한 마음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데 지체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고후 6:2 _____

히 3:13 _____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일찍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마 19:14). 일찍이 예수님을 찾을 때 풍성한 현신의 삶이 나타납니다(시 63:1).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하지만 틀림없이 잘못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의 손과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일찍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늦게 와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두울 때에 가야 한다

우리는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요 20:1 / 안식 후 첫날 일찍이 _____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찾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빛으로 들어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요 8:12 _____

행 26:28~29 _____

벤전 2:9 _____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토록 슬퍼하며 낙담합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향품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지라도 가야 한다

우리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요 20:2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강력한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큰 돌과 그곳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 예수님께 가는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굴러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에 의해 거대한 돌이 굴러갔으며, 빈 무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불필요한 일들에 관해 근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죽은 몸에 바를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로 오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고후 2:14

자신의 삶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삶의 끔찍함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둠에 있을 때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일찍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마 11:28 _____

요일 1:7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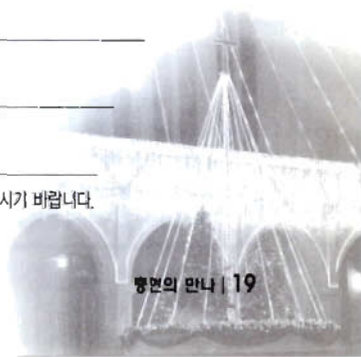
| 믿음의 기도 |

- 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그리스도의 보혈로 풍성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Merry Christmas

[illegible]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찬송가 174장

묵상노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7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없어진 시신의 자리를 보고 당황하며 근심하였습니다(4절). 그러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¹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부활의 실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4~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6절). 주님의 부활은 단지 신화적 이야기도, 우연적 사건도 아닙니다.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 밝히셨던 대로 말씀을 따라 죽음에서 부활로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13~35절).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로 인해 매우 슬퍼했습니다(17절).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그것이 과연 실제적 사건으로 역사되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며 그들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31절). 그들은 비로소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33절). 그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50~51절). 이 승천 사건은 그의 부활만큼이나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천 그대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은 재림을 전제합니다. 하늘로 오르신 분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다시 오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승천하시고 재위하시며 때가 되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신앙의 소망과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주님의 승천을 목도한 자들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승천을 믿지 않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적 기쁨입니다.

• **중언(48절)** : 헬리어 ‘미르투스’, 이 단어의 어근은 ‘스메르’(마음속에 품다, 관심을 갖다)로써, ‘기쁨’을 하고 어떤 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자가 그것에 관하여 자랑하고 전하며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자시니](눅 24:51)

While he was blessing them, he left them and was taken up into heaven. (Lk. 24:51)

기도제목

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4

화요일

요한복음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1:1).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합리적 생각’과 그 생각의 외적 표현인 ‘말’을 의미하는데, 성경상의 의미로 말하자면 우주의 ‘참 이치’, 곧 구원을 얻는 ‘참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영생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정의 내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요한복음의 시작인 1장은 구원의 실체이시고 신앙의 본질인 로고스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분이 곧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1절), 만물을 창조하셨으며(3절),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우리의 참 빛이 되십니다(4절).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전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어찌면 빛을 볼 수 없는 선택적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 빛을 싫어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빛을 비추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결코 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직 로고스 예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를 떠나서는 믿을 자체가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로고스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복음이 복음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찬송가 80장

묵상노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n. 1:1)

• **요한(14절)** : 헬라어 ‘자르코스’이다. 단순히 몸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몸과 마음 및 영혼까지도 다 포함한 전인적체를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생과 참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첫 표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찬송가 293장

묵상노트

예수님의 첫 표적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1~11절). 혼인 잔치는 말 그대로 즐겁고 기쁜 날의 상징입니다. 잔치에는 무엇보다 먹을 것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잔치가 잔치일 수 있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고 또한 함께 할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 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 잔치에는 이러한 잔치됨의 심각한 훼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잔칫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음식(포도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의 주인이든, 그곳에 참여한 객이든 모두가 부족해진 잔칫상의 '실재' 앞에 어리둥절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모든 곤궁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의 잔치다운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한 풍성함과 진한 맛으로 잔치를 즐기게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기쁘고 즐거워야 할 잔치가 포도주의 부족으로 인해 맞닿게 되는 실존적 가난함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된 돌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십니다. 잔치가 잔치되게 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교 전통으로 상징되는 '돌항아리'도 아무런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율법은 결코 인간의 참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잔치를 잔치되게 하시고, 영적 궁핍과 곤고함 속에 참된 영적 안식과 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이 사건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 통(6절): '액체'를 측량하는 기구'를 뜻한다. 한 통의 용량은 약 30ℓ이다. 그러므로 '두세 통' 항아리라 함은 약 80~120ℓ 정도 되는 항아리를 의미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요 2:11)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Jesus performed at Cana in Galilee. He thu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Jn. 2:11)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시고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눅셈이신 예수 그리스도

6

목요일

복음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복음의 실체를 전혀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거듭남'에 관하여 그는 인간의 출생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4절). 니고데모의 이러한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5절). 거듭남은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임을 니고데모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적 우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 수고와 애씀을 종교의 근거와 본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고 역사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영역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값을 치루신 은혜입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대속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매단 뱀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민 21:4~9) 나무에 달려 저주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피 값은 분명 값을 매길 수 없는 측량하기 어려운 보혈의 공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찬송가 385장

묵상노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 믿는 것(12절) : 헬라어 '피스트에테', 동사 '페이도'(의존하다)에서 온 명사형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찬송가 531장

묵상노트

사마리아 여인은 시나산 언약에 있어서 영적으로 불결하고 불순한 여인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교의 상징적인 위치를 지시하는데, 사마리아교는 혼합 종교에 가까웠고 자신들을 시나 언약의 후계자라고 자처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에 있었으며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즉 자신은 시나산 언약의 체계로 살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조상 야곱이 준 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11~12절). 이런 그녀에게 예수께서는 찾아오시어 참된 생명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께서 타락한 한 여인을 만나시어 그녀의 인생을 돌보시고 단순히 '상답'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변되는 유대교에 상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재를 알게 하시어 참된 예배, 참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시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인간 자신의 내재적 자원들로 인하여 생활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를 힘입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기 열심에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적 태생이 있든 종교적 열심과 열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구원의 참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 **예배(23절)** : 헬라어 '프로스퀴네오',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의 뜻이다. 참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이 꿇어 엎드리고 향복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Jn. 4:14)

기도제목

① 주님 안에 참된 구원과 영생하는 능력이 있음을 더욱 깊이 경험케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8

토요일

요한복음 5장
찬송가 452장

묵상노트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1~15절)은 앞장에 등장하는 고관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요 4:43~54)와 함께 소위 '안식일 논쟁'으로 알려져 있는 표적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표적을 통해 종말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자신을 통해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예수께서 안식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10~16절). 이 세상의 대표적 인물들로 상정된 유대인들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관점에 따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적 가치 판단인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얽박한 정치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 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실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17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하심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충동하기 위함도,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구원이 종말론적 참 안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의 표징이고, 또한 아버지의 그 일을 대행하는 참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한다고 해도 구원의 완성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은 허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참 안식의 회복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전제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이 일을 위한 참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안식일의 병 고침은 바로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요 5:17)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Jn. 5:17)

• 베데스다(2절) :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다. 예루살렘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는 연못으로 다섯 개의 행각이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예수님, 예수님

”

낮선 외국 땅, 여행 목적이 아닌 선교를 위해 그 땅에 처음 발을 디뎠다. 늦은 밤, 공항 주변에서 택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1시간을 기다렸다. 택시라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의 세 발 오토바이, 일명 뚝뚝이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 팀원 모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며 감사했다. 이렇게 첫 사역이 시작되었다. 매일 오전 경건회를 통해 수많은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할 테니 부디 인도해 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다른 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성령충만함을 주님께 감사드렸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느낄 수 없었다. 나의 입술에서는 하루하루 거짓 증거만 나왔다.

3일째 되는 날, 작은 마을에서 주님의 기다리심을 보았다. 축호전도를 위해 어느 시골 가정에 들어갔다. 10세쯤 되는 어린이가 내팽개쳐 있듯이 방 구석에 누워 앓고 있었다. 말라리아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 예수님, 저 아이



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한없이 눈물이 났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른 적이 없었다. 말라리아 약이 있었지만 줄 수가 없었다. 아니,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어린 아이의 육체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같이 계신 권사님과 환자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나왔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세상의 것과 신앙의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있던 나를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 순간 내 인생의 새로운 길과 해결점이 보였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기다림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다.

성대진(집사, 12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9 주일

10 월요일 ☐ 요한복음 6장11 화요일 ☐ 요한복음 7장12 수요일 ☐ 요한복음 8장13 목요일 ☐ 요한복음 9장14 금요일 ☐ 요한복음 10장15 토요일 ☐ 요한복음 11장

2

예수님의 사랑

Jesus' Love

| 초점 |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자

| 찬송 |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본문 | 요한복음 11:33~44

⁽³³⁾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³⁴⁾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³⁵⁾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³⁶⁾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³⁷⁾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³⁸⁾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³⁹⁾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⁴⁰⁾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⁴¹⁾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⁴²⁾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⁴³⁾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⁴⁴⁾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⁴⁵⁾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큰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은 예
외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 히브리서 9:27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없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
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낙심한 심령에 임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든지 간
에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마다 예수님은 돌보아주십
니다.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
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를 믿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딤후 1:9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
늘날의 교회들은 이 메시지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그리워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슬피하
는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그분이 오시게 합니다.

요 11:3 _____

요 11:5 _____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11:23~2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_____
_____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_____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시게 합니다.

요 11:33 /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_____ 여기시고 _____ 여기서

요 11:35 _____

애곡하는 곳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슬퍼하는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요 11:36). 이 얼마나 깊은 연민과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병이 드리우는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괴로움을 느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 11:38 _____

히 5:7 /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_____
_____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감동시킵니다.

요 11:39 _____

예수님은 중요한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준비하시던 주님은 제자들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돌을 옮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요 11:41~42 /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_____
_____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_____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부르신 뒤 외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은 믿기 바랍니다.

요 11:43~44 _____

예수님은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불러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손, 발을 들어 살펴보십시오. 나사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신자들이 다른 이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동참한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을 도왔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죄와 비통함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살전 4:13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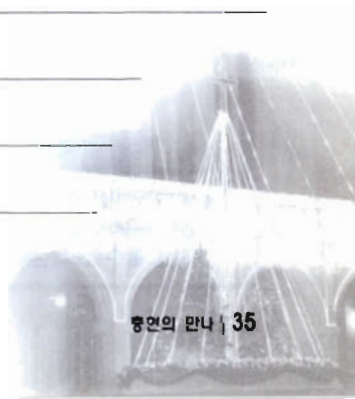
살전 4:16~17 _____

눅 5:32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좁고 험한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Merry Christmas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찬송가 198장

묵상노트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 두 바구니를 남기게 한 놀라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4~15절). 그러나 이 표적은 단순히 큰 무리의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 후,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25~59절).

떡은 생명과 깊은 관계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오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인간에게 '생명 줌'을 표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적 구원, 즉 신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구약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모형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형(그림자)이 아닌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시어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보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예고 에이미(나는 ~다)'의 서술 기법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만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35, 41, 48, 51, 58절). 그러므로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 주심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실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생명이 회복되거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요, 실체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께만 나아가길 바랍니다.

• 인치신(27절) : 헬라어 '스프라기조', '박아 버리다', '꽃다', '봉인하다'는 뜻.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의 독생자이심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요 6:35)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Jn. 6:35)

기도제목

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생수의 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11

화요일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37~39절). 초막절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끝날 전야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퍼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므리바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초막절 끝날에 이 예식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언하십니다. 광야에서의 므리바 생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후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39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굴레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 아래 있기에 참된 안식과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그 죽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참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 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참된 성령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생수를 통해 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8)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Jn. 7:38)

요한복음 7장
찬송가 336장

묵상노트

• 스스로 말하는 자(18절): 유대인 율법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교만과 자만에 가득 찬 율법학자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구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주님의 마스한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찬송가 197장

묵상노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12절). 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어 사물의 참된 내용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참된 복음과 구원의 은총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인격적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인간의 힘과 능력,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20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됨이 곧 하나님과 연합됨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아래(23절)** : 헬리어 ‘카토’, ‘제상’을 의미함. 반면에 ‘위(23절)’는 헬리어 ‘아노’로서 ‘하늘’을 가리킨다. 이 두 단어는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과 인간과의 차이점을 강조한 말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말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Jn. 8:12)

기도제목

- ① 빛이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빛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참양총합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

13

목요일

소경 치유 사건(1~12절)은 앞장에서 나타난 '제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더욱 확고히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소경 치유 사건을 놓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간계를 꾸밍니다(13~34절). 그러나 정작 소경은 다 른데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었습 니다. 눈은 뜨였으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 습니다(35~41절).

소경 치유 사건에 관하여 본문은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 니다. 첫째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반 응입니다(18,28~29,34절). 둘째는 소경의 부모의 반응인데 그들은 예수 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유대 회당에서 출교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22절). 셋째는 출교를 무릅쓰고 예 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소경의 반응입니다(25,27,30~33절). 예수님 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이 소경의 입을 통해 고백됩니다(33절). 예 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자이십니다. 예수 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 스도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고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동일본질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마치 유 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의 신앙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소경의 부모처럼 주께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 만, 전통과 습관이 두려워 신앙적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요 9:33)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Jn. 9:33)

요한복음 9장
찬송가 343장

무상노트

•출교(22절): 예배와 친교 의 모임으로부터 파문당 하는 것을 의미함. 유대 종교에서는 세 가지 종 류의 형벌이 있었다. ① 견책은 7~30일간의 징 계 ② 근신은 10인회로 부터 선고받고 최소한 40일간 공중 교제에 참 석할 수 없음 ③ 출교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추 방되는 것으로 그의 곁 에 2m 이내의 접근이 금 지됨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참된 신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0장
찬송가 569장

묵상노트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7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 오신 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문 역할을 하십니다. 오로지 그의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통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양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길’이 되십니다(요 14:6).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11절). 선한 목자는 궁극적으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양 떼를 지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양들을 위해 오셨고, 그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샅군은 결코 양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양의 목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대속사역에 어떤 이유가 우리 편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조건도, 원인도 없기에 오직 주의 전적인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욱 깊이 누리고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10절).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집중하고 더욱 본질로 삼아야 할 것은 인간의 종교적 성향과 특성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행하시기에 그 생명의 부요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 **양의 이름(3절)** : 동방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모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았고 그 음성에 따라 여러 자리로 인도를 받았다고 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Jn. 10:11)

기도제목

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선한 목자되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감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15

토요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생명을 가져오시는 로고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앞서 선언한 말씀이 참 진리임을 살증하여 보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요 5:21). 나사로를 살리심은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지시하는 표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를 만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자들이 알고 있는 참 진리는 모든 자들은 결국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고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의 늪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좀 빨리 죽든지 아니면 좀 늦게 죽든지 약간의 존재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역사상 초유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비통히 여기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찬송가 385장

묵상노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n. 11:25~26)

• 나사로(1절) :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을 지닌다. 이 나사로는 누가복음 10:19~31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는 다른 인물이다. 즉 동명이인이라 할 수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는 희랍어로 현자(賢者)를 뜻하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아마도 페르시아나 남부 아라비아)으로부터 별을 관측하여 추적해 온 인물들(마 2:1~2)이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들의 신분을 왕으로 판정(시 72:10)했고, 6세기 이후에는 이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들이 점성술사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의 수효가 셋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마 2:11)이라는 사실로부터 추론한 것에 불과하다.

동방 박사의 예수 경배는 흔히 잘못 알고 있듯,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밤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신 밤에 여관(inn) 마구간의 구유에 아기로서 누워 있었으나(눅 2:7,12,16), 동방 박사가 방문한 곳은 집(house, 마 2:11)이고 아기도 어느 정도 자라나 아이가 되어 있었다. 더욱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 후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아니라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것을(마 2:16) 보아서도 이미 예수께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방 박사의 예수 방문이 성탄을 기점으로 해 적어도 몇 개월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한다.

내 증인이 되다

Be My Witness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6 주일

17 월요일

☐ 느헤미야 1장

18 화요일

☐ 느헤미야 2장

19 수요일

☐ 느헤미야 3장

20 목요일

☐ 느헤미야 4장

21 금요일

☐ 느헤미야 5장

22 토요일

☐ 느헤미야 6장

3

내 증인이 되리라

Be My Witness

| 초점 |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 찬송 |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 본문 |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첫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천국으로 가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약간 산만하였습니다.

행 1:6 _____

행 1:7 _____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인 됨에 대한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보십시오.

증인의 책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한 사건이나 범죄의 증인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행 2:36)?

※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행 8:34~35)?

※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행 26:2,7~8)?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무엇이든 여러분은 전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주님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행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_____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증거해야 할 분이시, 이 세상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적인 출생, 지상에서의 사역,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전해야 합니다.

요 3:16 _____

고전 15:3~4 _____

우리의 사명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다

주님의 증인들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행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_____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교구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집이나 일터 또는 노는 중에라도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종종 여러분의 말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 대한 것뿐입니다.

※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딤후 4:2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_____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개개인은 우리의 증거함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2). 하나님은 책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집회는 우리에게 첫 선교 집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쓰레기 같은 말을 내버려 잇고, 단지 그분의 증인이 되기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첫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막 16:15~16 _____

히 12: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 ②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에 집중하여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③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Merry Christmas

[illegible]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천)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이들은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 1장
찬송가 395장

묵상노트

아닥사스다가 바사의 왕으로 있을 때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1~4절). 예레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공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5절). 이스라엘이 망하여 흩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현재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죄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합니다(6~7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흠을 짓이요, 지켜 행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고 애원하고(8~10절) 그 때에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 됩니다(11절).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지라도 여전히 여호와와 종이며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인간의 선행과 관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느 1:10)
They are your servants and your people, whom you redeemed by your great strength and your mighty hand. (Neh. 1:10)

• 왕의 술 관원(11절) : ‘술 관원’이란 말의 문자적인 뜻은 ‘바실 것을 주는 자’이다. 주요 임무는 왕에게 올릴 술을 선정하고 맛을 보며 독소의 유무를 가리는 일이었다.

기도제목

① 범죄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수치를 당하지 말자

18

화요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를 묻습니다(1~2절).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 황폐한 것과 성문이 불탄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며 슬퍼하자 왕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3~4절).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실 것과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을 용납하고 무사히 통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5~7절).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지만 강 서쪽의 총독들은 이 일로 인해 근심합니다(8~10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고민하며 한밤중에 성벽을 돌아본 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말합니다(11~18절). 백성들은 반기나 서쪽 총독들은 반발하고 비웃으며 왕을 배반하려 한다고 모함합니다(19~20절).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17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불타버렸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의 강함을 이방 나라에 자랑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주께서 흠여 버렸던 나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드러난 죄의 수치를 이제는 당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것이 수치라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요 6:40)입니다. 만약 이 뜻을 거스른다면 마지막 날에 받을 수치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느 2:17)

Then I said to them, “You see the trouble we are in: Jerusalem lies in ruins,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with fire. Come,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and we will no longer be in disgrace.”(Neh. 2:17)

느헤미야 2장
찬송가 259장

묵상노트

• 산발랏(10절) : ‘월신이 생명을 준다’는 뜻의 바벨론 이름. 그는 사마리아 성의 통치권을 주장한 느헤미야의 장척이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서 또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 3장
찬송가 374장

묵상노트

예루살렘 성벽은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함으로 시작됩니다(1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암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어문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합니다(2~4절). 계속해서 성벽 건축은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이어져 여리고 사람들과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 건축에 동참하였으며,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성문과 문짝, 자물쇠, 망대에 이르기까지 중수하게 됩니다(5~32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데, 거기에는 여리고 사람들과 드고아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은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동기를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느헤미야에 의해 강압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서 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방해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대제사장 엘리아십(1절) : 제차 귀환 때 돌아온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로써, 그의 아들은 여호난이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암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느 3:2)
The men of Jericho built the adjoining section, and Zaccur son of Imri built next to them. (Neh. 3:2)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20

목요일

산발랏과 도비아는 성벽 재건 소식을 듣자 크게 분노하며 조롱했습니다(1~3절). 느헤미야는 그들이 비웃고 욕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4~5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 전체를 연결하고 높이도 절반이나 쌓자 산발랏과 도비아 등의 반대 세력들은 심히 분노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합니다(6~11절). 유다 백성들이 실의에 빠지자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12~14절), 이때부터 백성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전쟁을 대비했으며, 어디서건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15~20절).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벌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파수하는 자는 파수로, 성을 쌓는 자는 성 쌓는 것으로 수고하였습니다(21~23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갈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산발랏과 도비아 등의 반대 세력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갈수록 시기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별한 섭리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당당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러한 자들의 꾀방이 악행임과 하나님께서 그 악행이 숨겨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과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과 그들의 꾀방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4~5절).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를 꾀방하는 일은 복음을 꾀방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진리를 허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느 4:5)

Do not cover up their guilt or blot out their sins from your sight, for they have thrown insults in the face of the builders.(Neh. 4:5)

느헤미야 4장
찬송가 424장

묵상노트

• 불탄 돌(2절) :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불타버렸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 사업을 모욕하고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주님의 교회를 하는 꾀방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느헤미야 5장
찬송가 329장

묵상노트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희생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유다 사람들 중에는 그 곤궁한 상황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1~5절). 느헤미야는 먹을 것이 없어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있다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하여 높은 이자를 취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대회를 엮습니다(6~7절). 느헤미야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자신들의 형제들을 도로 찾았거늘 그들은 다시 그들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고 책망하며 백성들에게 꾸어준 것에 대한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제안합니다(8~11절).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하였고 온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12~13절).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과 같이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으며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도 않고 오직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습니다(14~19절).

인간의 죄성은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항상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받는 이자를 금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홀로 사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달랠트 빚진 자에게 이자는커녕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값임없이 그 은혜를 모른 채 다른 사람들에게 값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구원의 몸값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당(3절) : 부자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어야 했으며, 가난한 자의 물건을 장기간 저당 잡을 수 없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느 5:9)

So I continued, "What you are doing is not right. Shouldn't you walk in the fear of our God to avoid the reproach of our Gentile enemies?" (Neh. 5:9)

기도제목

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몸값을 값싼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산발랏과 계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어 네 번이나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고 갈 수 없다며 모두 거절하였습니다(1~4절). 그러자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가 모반을 꾀하고 왕이 되려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함께 의논할 것을 요청하지만 느헤미야는 지어낸 것이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며 거절합니다(5~9절). 이 후에 므헤나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산발랏과 그 무리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밤에 올 것이니 외소에 숨으라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에게 뇌물을 주고 시킨 것임을 알아차립니다(10~14절).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에 끝나자 모든 대적들이 듣고 두려워하며 낙담합니다(15~16절). 대적들은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을 맺고 여러 번 협박 편지를 보내 느헤미야를 위협했습니다(17~19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외소에 숨어서 목숨을 건지라는 충고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듯 ‘나 같은 자’(11절)라는 생각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라는 선언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온통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을 만나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느 6:11)

But I said, "Should a man like me run away? Or should one like me go into the temple to save his life? I will not go!" (Neh. 6:11)

느헤미야 6장
찬송가 111장

묵상노트

• 도비아(17절) : 그는 혈연 관계를 이용하여 유다의 여러 영향력 있는 가문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으며 성벽 재건 공사를 도왔던 므술람의 딸을 자부로 맞았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나 같은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사랑

Christmas

”



크리스마스는 그냥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날이라는 생각뿐이었는데, 해가 거듭 지나갈수록 성탄절 말씀을 미리 듣고, 성탄 찬송을 찬양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인식뿐이었지만 지금은 그 탄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의 크리스마스와는 정말 다른, 가족과 같이 점점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축제를 준비하는 식으로 하나의 행사로 여기며, 그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분주함으로 연말에만 들뜨는 날이 되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성탄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제가 만약 주님처럼 태어났다면, 저는 참 서글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운명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니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천사들이 찬양을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는 순간 '아, 정말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구나. 천사들만 찬양을 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몽클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날이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성복(집사, 15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3 주일

24 월요일

☐ 느헤미야 7장

25 화요일

☐ 느헤미야 8장

26 수요일

☐ 느헤미야 9장

27 목요일

☐ 느헤미야 10장

28 금요일

☐ 느헤미야 11장

29 토요일

☐ 느헤미야 12장

4

금년의 남은 시간에

Still Time This Year

| 초점 |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 찬송 |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 본문 | 고린도후서 6:1~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13년이 되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이때, 우리는 2012년의 마지막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카운트다운이며, 그렇기에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 2012년을 돌아보며, 떠오르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갈 6:17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이보다 먼저 우리는 올해 우리가 했던 일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하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해 낙심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허비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며, 아직 큰 일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구원받을 시간이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후 6:2 /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_____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눅 18:13~14 _____

여러분에게는 믿을 시간이 있습니다(요 3:16). 여러분에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시간이 있습니다(롬 10:9). 구원은 하나님이 저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롬 10:13 _____

행 16:31 _____

가장 슬픈 성경 구절 중 한 구절은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렘 8:20). 잃어버린 영혼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항복할 시간이 있다

항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후 5:17

바울의 회심은 새 피조물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리스도인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그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행 9:6

사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였습니다. 그의 온전한 항복은 자신의 미래를 바꾸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항복을 할 것을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롬 12:1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영혼들을 이끌어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기 바랍니다.

구주가 오실 시간이 있다

구주가 오실 시간이 있습니다.

계 22:12 _____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 14:1~3 _____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그리스도인을 부활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주님을 섬겨온 모든 이들을 위한 상급을 들고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대하지 못한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살전 4:16~18 _____

눅 12:40 _____

고전 15:51~52 _____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총의 기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2012년이 끝나기까지 단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이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마 4:17 _____

마 16:24 _____

히 11:16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Merry Christmas



#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고,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져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 경의를 표하며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1~6절).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7~8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말씀을 깨닫고 율기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하였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9~12절).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율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많은 수가 모여 드는 것이지만 참된 부흥은 심령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깨어짐을 경험할 때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행동에 대한 잘못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았던 방향성의 문제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할 때 주님은 놀랍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재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느 8:9)

Then Nehemiah the governor, Ezra the priest and scribe, and the Levites who were instructing the people said to them all, "This day is sacred to the LORD your God. Do not mourn or weep." For all the people had been weeping as they listened to the words of the Law. (Neh. 8:9)

느헤미야 8장
찬송가 122장

묵상노트

• 들감람나무(15절) : 이 나무의 기쁨은 성전의 나무 기쁨을 만들 때 사용되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내가 아닌 주님이 진짜인 삶이 되는 놀라운 부흥을 날마다 허락하소서. ②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 오심으로만 벽한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느헤미야 9장
찬송가 126장

묵상노트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은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여호와와 올법 책을 낭독하였습니다(1~3절). 레위 사람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는 여호와 한 분이심을 찬양하며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심과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후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4~14절). 그들의 조상들은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만하여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였지만 주께서는 공황을 베푸셔서 40년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15~21절). 이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또 죄를 범하여 그들을 이방 땅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록하고 인봉합니다(22~38절).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죄박에 짓기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성경의 생생한 증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하고 은혜를 잊고 교만하며 불평하여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또 회개시켜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키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죄인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패에서 실패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성경의 증언이 있음에도 여전히 구약 백성들처럼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개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느 9:16)

But they, our forefathers, became arrogant and stiff-necked, and did not obey your commands. (Neh. 9:16)

• 낮 사분의 일(3절) : 세 시간 동안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 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의 길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깨닫는 자의 회개

27

목요일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언약을 세워 기록한 후 도장을 찍어 인봉했습니다(1~27절). 어떤 이들은 이방인과 절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습니다(28~31절).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절기를 지킬 것이며 절기와 제사마다 드려지는 제물을 모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기로 했으며, 각종 과목의 첫 열매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32~36절).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이며 레위인들도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전 곳곳에 두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비치게 하였습니다(37~3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30절)고 선언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많이 무너져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계시다면 자신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에 굳이 선민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흡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결혼 상대라 하더라도 적당한 부와 인정받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은근히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면 회개하게 됩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느 10:30)

We promise not to give our daughters in marriage to the peoples around us or take their daughters for our sons.(Neh. 10:30)

느헤미야 10장
찬송가 523장

묵상노트

• 일곱째 해(31절) : 모든 빛을 탐강해 주라고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출애굽기 23:10~11과 신명기 15:1~3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신자 가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자원하는 백성들

느헤미야 11장
찬송가 329장

묵상노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십분의 일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1~2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 몇 명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었습니다(3~14절). 레위 사람 중에서도 이백팔십사 명만 남아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했습니다(15~18절).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 중에 성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19~24절). 나머지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도 백성들이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25~36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수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체 백성 중 1/10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로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나는 나의 것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생명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 장인들의 골짜기(35절) : 로드와 오노 평지 사이의 넓은 계곡을 가리키는 듯하다. 장인이라고 불린 것은 블레셋 철공들의 기술이 전수되어 온 지역이기 때문이다(삼상 13:19~20).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느 11:2)

The people commended all the men who volunteered to live in Jerusalem.(Neh. 11:2)

기도제목

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29

토요일

포로 귀환 1세대인 스룹바벨 시대, 곧 예수아가 대제사장이던 시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으며,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1~11절). 이어서 포로 귀환 제2세대인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12~21절). 그리고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부터 낙성식을 할 때까지 레위 족장의 명단이 기록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살았습니다(22~26절).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며 심히 즐거워했습니다(27~43절). 이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수고에 감동하여 백성들은 공간을 세워 율법의 규례대로 예물과 제물을 가져와 그들을 섬겼습니다(44~4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식을 끝낸 후에 성벽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를 선두로 하여 우편으로 본문을 향해 성벽 위를 걸었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를 선두로 하여 그 반대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가 다시 마주치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끊김 없이 연결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을 움직이셨고, 종으로 있던 느헤미야를 높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연출자가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느 12:31)

I had the leaders of Judah go up on top of the wall. I also assigned two large choirs to give thanks. One was to proceed on top of the wall to the right, toward the Dung Gate. (Neh. 12:31)

느헤미야 12장
찬송가 458장

묵상노트

• 다윗과 아삽의 때(46절) : 이때 처음으로 성전의 규례가 만들어지고 찬양대가 조직되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우리 인생의 연출자요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믿음의 전진

Yes, CROSS
Yes, POWER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갈 2:20). Yes Cross, Yes Power!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지 절대로 '배워서 나아지는 것' 이 아닙니다(고후 5:17). 주님의 말씀에 "예"(Yes)하고 실천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201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무엇을 정리하며, 새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믿는다면 이제 믿음(요 1:21)으로 내가 가진 전부(눅 21:4)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며 예수님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2012년을 위한 최선의 정리이며, 2013년을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고전 3:6).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0 주일

31 월요일 ☐ 노헤미야 13장

1 화요일 ☐ 에스더 1장

2 수요일 ☐ 에스더 2장

3 목요일 ☐ 에스더 3장

4 금요일 ☐ 에스더 4장

5 토요일 ☐ 에스더 5장

5

매우 중요한 조언

Very Important Advice

| 초점 |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 찬송 |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 본문 | 시편 90: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매우 짧은 것입니다. 만일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자신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닌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짧은 삶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입니까?

※ 중요한 조언 (설교문 참조)

여러분도 언젠가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여러분은 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유한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날수를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하십시오.

2012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는 삶의 중요한 일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 중의 하나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조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기 원합니다.

※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떠올리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써 보십시오.

행 16:31 _____

요 3:16,30 _____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교회 가는 것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을 조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 3:20 _____

요 6:37 _____

요일 5:11~13 _____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주소를 나누기 원합니다.

※ 죽음 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주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요 13:1, 16:7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은 너무나 놀라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빌 1:21~23).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즉시 몸에서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후 5:8

요 14:1~3

우리가 거할 영원한 새 집은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곳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가족과 살게 될 것입니다.

※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cf. 계 5:9, 14:13, 19:7, 21:11,22~23)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 조언을 해 주기 원합니다.

눅 19:10 _____

눅 5:32 _____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매우 긴급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저주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조언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 잃어버린 자들에게 '중요한 조언' 하기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따뜻하고 놀라우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 값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보증합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믿을 때이며, 오늘이 구원의 날이어야 합니다.

고후 6:1~2 _____

※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지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곧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는 유한하고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영원한 삶을 보증해 줄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 땅의 삶에서는 내일을 보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올 때 영원한 삶을 완전히 보증받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계 21:27 _____

딤후 4:1~2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믿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가 복음 위에 서서,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Merry Christmas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너희가 어찌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 13장
찬송가 415장

묵상노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1차 시기 때, 느헤미야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세의 기록을 읽고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였습니다(1~3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총독으로 있을 2차 시기 때,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것을 알고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내어 던지고 다시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4~9절). 느헤미야는 또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한 일을 바로 잡았으며, 안식일을 범하여 일을 하: 것과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10~22절). 또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벌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으며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기에 그를 쫓아내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23~31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것과 자신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17절)고 책망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참된 본질은 단순히 규정된 의식과 절차를 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죄 사함을 누리며 공휴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키며 예수 안에서 참된 죄 사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13:17)

I rebuked the nobles of Judah and said to them, "What is this wicked thing you are doing--desecrating the Sabbath day?(Neh. 1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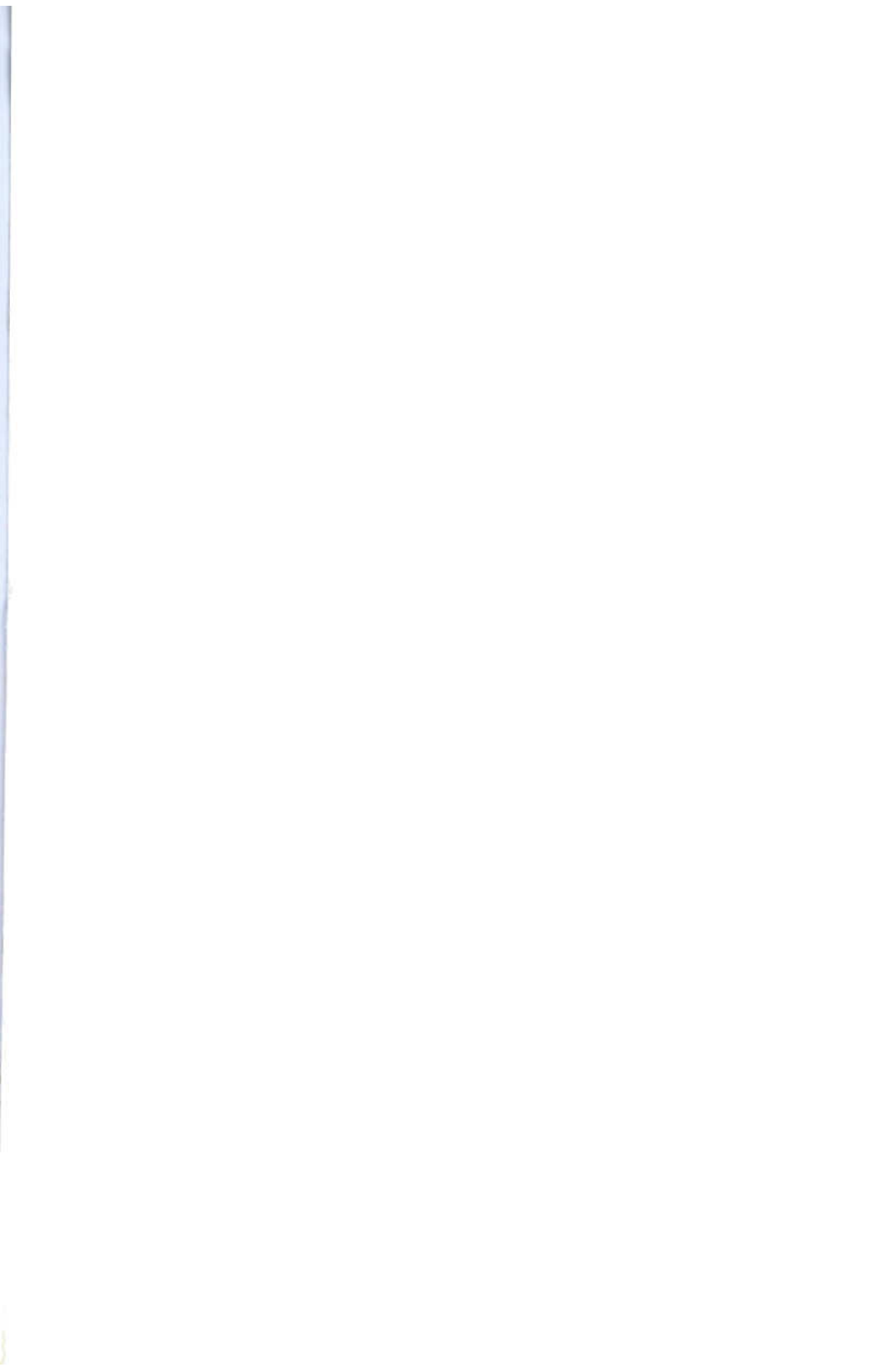
•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이년(6절):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총독 직무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왔던 B.C. 433년을 가리킨다. 그는 이듬해인 B.C. 432년에 다시 유대로 돌아왔다.

기도제목

- 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② 2013년에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침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중년의 만나 2012년 12월

Copyright©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6-1 전화 552-8200) [비매품]